

● 제290회 ●
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

제9차 보건복지위원회

#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19. 12. 17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수 석 전 문 위 원

## 【 김혜련 의원 대표발의 】

의안번호 1121

### I. 조례안 개요

#### 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안자 : 김혜련 의원의 9명
- 나. 제안일 : 2019. 10. 16.
- 다. 회부일 : 2019. 10. 22.

##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## 가. 제안이유

- 2018년 기준 우리나라는 평생 아이 1명도 안낳는 OECD내 유일 한 초저출산국가로 고령화시대와 함께 인구절벽 사태가 예상된 가운데, 특히 서울시는 0.7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심각한 상황임.
- 이에 신생아 및 산모에게 필요한 용품을 제공하여 출산 가정 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을 강화하기 위 해 지원시기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 하여 “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서울”을 조성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출산축하용품의 명칭을 출생축하용품으로 변경함 (안 제2조제 5호)
- 지원 대상아이를 출생예정 아동을 포함하여 규정함 (안 제2조 제6호)
- “보호자”에 출산 예정인 산모를 포함하여 규정함 (안 제2조제 7호)
- 지원금액을 ‘15만원 이내’로 확대하여 규정함 (안 제4조2제2항)
- 지원기간을 ‘출생예정일 전 50일부터 출생일 이후 3개월 이내’로 하여 규정함 (안 제4조2제4항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### 1 조례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출산축하용품 지원 확대와 보완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여 저출산 대응 정책 강화 및 ‘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서울’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개요(2019)

- 추진근거 : 「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」 제10조,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2
- 사업기간 : '18년 7월이후 매년
- 지원대상 :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
- 지원내용 : 출산용품 지원(1인당 10만원 상당)
- 지급방식 : 물품
- 계약기간 : '19년 3월 ~ '20년 3월말까지
  - 물품지급기간은 '19.3월 ~ '20.2월 출생신고분
- 대상인원 : 60,600명 예상 ('18. 1~6월 출생아수 : 30,300명)
- (총)사업비 : 6,363백만원(시비 100%)
  - 축하용품용품 구성 : 60,600명×100천원=6,060,000천원
  - 용품 세트 포장·배송 : 60,600명×5천원=303,000천원

### 2 주요사항 검토

- ‘출산축하용품’을 ‘출생축하용품’으로 용어변경(안 제2조제5호 등)
  -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 제2조제5호에서 ‘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’이라고 정의하고 그 용어는 “출산축하용품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“출생축하용품”으로 통일하여, 용어와 정

의 간의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됨.

#### □ 출생축하용품 지원내용 및 시기 확대 (안 제4조의2제5호 등)

- 개정조례안(안 제4조의2 제2항)은 현행 출산축하용품 지원금액을 아이 1명당 10만원 이내로 정하고 있는 것을 1명당 15만원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동 조례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임.
- 또한 국회입법조사처(2017)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 소요예산 비율과 합계출산율은 양(+)<sup>1)</sup>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<sup>1)</sup>, 이는 출생축하용품 지원 확대를 포함한 서울시 저출산 대응 정책의 강화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 하겠음.
- 개정조례안(안 제4조의2 제2항)은 현재 조례를 근거로 출생 후 3개월 이내 서울시에 출생이 등록된 아이를 대상으로 신청을 통해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하는 것을, 출생예정일 전 50일부터 출생 후 3개월 이내의 아이로 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연장하려는 내용임.
- 이는 유축기 등 수유에 필요한 용품이나 신생아 용품이 대부분 출산 직후 바로 필요한 출산준비물로, 현행처럼 출생 신고 시 신청하고 배송기간까지 고려하면 출산축하용품의 활용도나 시의성이

---

1) 박선권(2017.8), “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지표 및 시사점”. 『지표로보는 이슈』, 제97호, 국회입법조사처.

떨어진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
- 다만, 허위 임신진단서 등을 통한 아파트 불법 청약이 적발된 사례를 고려해볼 때, 출생전 아동 대상 지급시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절차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### 〈 출산축하용품 구성 〉

구 분	세트 1 (아기수유세트, 7종)	세트 2 (아기건강세트, 6종)	세트 3 (아기외출세트, 5종)
구성 품목	유축기 수유패드 모유저장팩 수유시트 젖병솔 세트(병, 꼭지) 젖병세제 유아용 실리콘 칫솔 3종세트	비접촉식체온계 콧물흡입기 온습도계 탕온도계 신생아 손톱가위 유아면봉(300PCS)	아기띠 다용도기저귀매트 밤부 가제손수건(4PCS) 플라워 치아 발육기 에코백
사진			

출처 : 2019년 서울특별시 출생축하용품 지원 계획(가족담당관-367, 20419.1.7.)

주: 해당 구성은 (주) 휴비딕과 계약한 내용임(기간 : '18.6.4. ~ '19.3.31. )

#### □ 지원 개시일 관련 부칙 규정

-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15만원으로 확대된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을

(부칙 안 제2조) 2020년 4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2020년 4월 1일 현재 출생예정일 50일 전인 아이로 정하고 있음.

- 이는 최초 사업이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물품 계약 업체와 2020년 3월말까지 1인당 10만원 기준으로 계약을 맺은 관계로, 현재의 계약이 만료된 이후 개정사안을 반영하여 추진하려는 것임.

### 3 종합 의견

-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채 1명이 안되는 0.9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초저출산 상태로, 특히 서울시 합계출산율(0.76명, '18년도)은 전국에서 가장 낮고, 출생아수 역시 역대 최저로 2010년 이후 초저출산 상태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임.
  -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0년간 100조 원 이르는 예산을 집행했으며, 서울시의 경우에도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매년 보육예산을 1조 8천억 원 편성·집행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.
- 본 개정안은 지역사회공동체가 아이의 출생을 함께 축하하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하고 있는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명을 변경하고, 지원금액과 시기를 확대하는 것인 바,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.
  - 다만 출산전 아이의 경우, 부정수급 문제 등을 고려하여 세심한 사업계획 및 시행방법의 마련이 필요함.

〈참고자료 1〉

## 자치구 출산축하용품 지원 현황

연번	자치구	지원사업명	지원사업주요내용	지원시작시기
1	광진구	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	민간기업라이온코리아와 협약하여 관내 거주하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가정에 손제정제세트 지원(85부터)	'18.5월부터
2	동대문구	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	28,000원상당 물품: 기저귀, 물티슈	첫째아: '16.1월부터 모든출생아: '19.1월부터
3	도봉구	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	민간기업라이온코리아와 협약하여 관내 거주하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가정에 손제정제세트 지원	'17.11월부터
4	은평구	다자녀 출산용품교환권	셋째아 이상 출산가정, 15만원상당 상품권	'10.1월부터
5	서대문구	다자녀가족 입학축하상품권 지급	다자녀 입학축하 상품권(셋째아부터)	'10.6월부터
		출생축하용품 지원 사업	민간기업라이온코리아와 협약하여 관내 거주하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가정에 손제정제세트 지원	'17.11월부터
6	양천구	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	민간기업라이온코리아와 협약하여 관내 거주하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가정에 손제정제세트 지원	'17.9월부터
7	영등포구	복스타트 사업	관내 18개월이하 영유아 및 양육자 대상으로 책꾸러미 (그림책2권, 가이드북,추천도서목록 등)을 제공	'19.1월 부터
8	동작구	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	셋째아 이후 구와 계약한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(1인당 2만원 이내, 5년간 지원)	'11.1월부터
9	관악구	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	민간기업라이온코리아과 협약하여 관내 거주하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가정에 손제정제세트 지원	'17.9월부터
10	서초구	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	1. 첫째 : 물티슈(관내 기업 업무협약) 2 셋째이상 : 육아용품꾸러미(관내 기업 업무협약) 3. 모든출산가정 : 육아의류용품세트 2종 택1(구비)	1. '11년부터 2. '11년부터 3. '18년부터
11	송파구	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	민간기업라이온코리아와 협약하여 관내 거주하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가정에 손제정제세트 지원	'17.8월부터
12	강동구	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	출생신고하는 모든 가정에 지급 1. 핸드숍세트 (민간기업 라이온코리아와 협약) 2. 영유아기저귀 (구비 사업)	'17년부터

자료출처: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내부자료(2019)



〈참고자료 2〉

자치구 출산장려(축하)금 지원 현황

구분	자치구	출산축하금 현황						
		첫째	둘째	셋째	넷째	다섯째	2019년 예산액	조건
1	종로구	300	1,000	1,500	1,500	1,500	481,000	부 또는 모가 10개월 거주
2	중구	200	1,000	2,000	3,000	5,000	350,000	부 또는 모가 1년 거주
3	용산구	100	200	500	1,000	1,000	230,000	부 또는 모가 1년 거주
4	성동구	-	200	1,000	1,500	1,500	262,000	부 또는 모가 1년 거주
5	광진구	100	300	500	1,000	5,000	519,000	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거주
6	동대문구	100	600	1,000	2,000	3,000	758,600	부 또는 모가 6개월 거주
7	중랑구	100	500	1,000	2,000	2,000	790,000	부 또는 모가 1년 거주
8	성북구	100	300	500	1,000	1,000	477,000	부 또는 모가 6개월 거주
9	강북구	-	300	600	1,000	1,500	285,000	부 또는 모가 3개월 거주
10	도봉구	100	300	500	1,000	1,000	370,000	부 또는 모가 3개월 거주
11	노원구	-	200	500	1,000	1,000	410,000	부 또는 모가 3개월 거주
12	은평구	100	350	700	1,000	2,000	689,050	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거주
13	서대문구	100	200	500	500	500	345,000	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거주
14	마포구	100	500	1,000	3,000	5,000	845,600	부 또는 모가 6개월 거주
15	양천구	-	500	700	1,000	2,000	812,000	부 또는 모가 6개월 거주
16	강서구	100	500	1,000	1,500	2,000	1,334,000	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거주
17	구로구	-	300	600	2,000	2,000	476,000	부 또는 모가 1년 거주
18	금천구	-	500	700	1,000	1,000	390,000	부 또는 모가 1년 거주
19	영등포구	100	500	3,000	5,000	5,000	1,116,000	부 또는 모가 1년 거주
20	동작구	300	500	1,000	2,000	2,000	1,216,000	부 또는 모가 6개월 거주
21	관악구	100	200	300	500	1,000	335,000	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거주
22	서초구	-	500	1,000	1,000	1,000	680,000	부 또는 모가 1년 거주
23	강남구	300	1,000	3,000	5,000	5,000	1,730,000	부 또는 모가 1년 거주
24	송파구	-	300	500	1,000	1,000	750,000	부 또는 모가 6개월 거주
25	강동구	100	200	500	1,000	1,000	566,400	부 또는 모가 1년 거주

자료출처: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내부자료(2019)